PBC 미주평화신문
The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nu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6500 Fax. (718) 762-5108
editors@peacetimesweekly.org

평화신문

제1311호 /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이민의 날 THE PEACE TIMES WEEKLY (미주판) 2015년 4월 26일

마지막 정성을… 중앙 MEMORIAL 장의사
Toll Free : 888-353-2424
미주 최초의 한인공인 장례식.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고인에 대한 사랑, 정성, 예의는 중앙 장의사의 약속입니다.
뉴 욕 | 718·353·2424 뉴저지 | 201·945·2009

꾸르실료 운동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시간

캐나다 한인 꾸르실료 사무국, 토론토 한맘 성당에서 '지도자 학교' 운영

캐나다 한인 꾸르실료 사무국에서 운영한 '지도자 학교'에서 신문갑 비오 신부가 강의하고 있다.

【온타리오】 캐나다 한인 꾸르실료 사무국(지도신부 신문갑 비오, 주간 이상철 라파엘)에서는 지난 4월 11일(토)과 18일(토) 2회에 걸쳐 토론토 성 김 안드레아(한맘) 성당(주임 최규식 그레고리오 신부) 세미나실에서 꾸르실료 '지도자 학교'(교장 김철제 마르코)를 운영했다.

이번 지도자 학교에 연인원 50여 명이 참가했고 11시 미사로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3명의 평신도 Rollista와 꾸르실리스따들이 함께 한 첫날에는 Cursillo of Cursillos(꾸르실료 운동의 꾸르실료)에 관한 창시 은사(Foundation harism), 꾸르실료 운동의 목적과 본질, 꾸르실료의 정신(Mentality) 등 꾸르실료 주말에 필요한 7개의 롤료와 1개의 성직자 롤료로 구성되었다.

둘째 날에는 9월에 있을 여성 꾸르실료 주말 봉사자들이 꾸르실료 운동의 사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말에 임할 수 있도록 3박 4일 주말의 흐름과 메시지, 14개의 롤료 그리고 꾸르실료 운동의 완전 보장인 울뜨레아 등에 대하여 3명의 평신도와 1명의 성직자가 롤료를 구성했다.

이번 지도자 학교에 두 차례 연속 참가한 토론토 성 김 안드레아(한맘) 성당의 이정철 레오는 "꾸르실료 주말의 흐름과 메시지에 대하여 명확히 알게 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부자된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김철제 교장은 "꾸르실료 정통성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지도자 학교는 꾸르실리스따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많은 꾸르실리스따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쉽다. 다음 지도자 학교에는 보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며 지도자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짚었다.

기사/사진 제공: 이상철 라파엘

성소 체험은 자신에서 탈출할 때 가능

교황, 제52차 성소주일 담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52차 성소주일(26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 '탈출, 성소의 본질적 체험'에서 "삶을 봉헌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소를 탈출 체험에 빗대어 설명한 교황은 "참된 탈출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 그리고 교회 전체의 여정이며, 아버지를 향한 결정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라며 "모든 그리스도인 성소 바탕에는 신앙 체험의 이러한 근본적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어 "탈출 체험은 그리스도인의 삶, 특히 복음을 위한 특별 봉헌의 성소를 받아들인 이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성소자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변화하는 태도를 요청했다.

교황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거짓 안락에서 벗어나 삶과 행복의 시작이며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나서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탈출의 움직임은 교회 전체의 선교와 복음화 활동에도 관련된다"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소는 가장 가난한 이들의 해방을 위해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황은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일시적 기분으로 여길 수 있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성소자들이 존재 전체를 바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헌신하기를 당부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자신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교황은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며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말씀"이라며 하느님 부르심에 따르는 삶은 날마다 풍요롭고 기쁨에 넘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pbc.co.kr

혁신적인 기쁨을 체험하며 복음을 전하자

뉴욕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NYKCLC) 일일피정에 65명 참여

【뉴욕】 뉴욕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NYKCLC, 의장 김은애 크리스티나, 지도신부 Fr. Jim Borbely, SJ) 일일피정이 지난 19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오씨닝에 위치한 마리안데일 피정집에서 있었다. 이 피정의 주제는 "교황님의 혁신적인 기쁨"이었고 메리놀외방선교회 소속 배종섭 신부(Rev. Joseph Veneroso, M.M., 퀸즈성당 주일 보조)의 지도로 65명이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뉴욕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일일피정에서 CLC 회원들이 미사 중에 서약 갱신을 하고 있다.

이번 피정은 미국인인 배종섭 신부가 영어로 강의하고 한국어 통역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배 신부는 스스로를 '교황님께 중독된 사제'라고 소개하며 교황님의 사목방향과 자신의 사목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강의에서 배 신부는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체험한 우리가 울상(우거지상)을 하고 살면 복음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혁신적인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분한 어조의 통역자가 있었지만 배 신부는 중간중간 위트가 번쩍이는 재담을 기발한 한국어로 표현해 피정 참가자들을 웃음바다로 몰고 갔다. 또한 배 신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잊지못할 큰 순간의 경험들을 들려주었는데 이 모든 체험의 순간은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관상할 때와 같이 하느님께 몰두해 있는 순간에 일어났다고 했다. 그리고 지나치게 어려운 일에 대해 심려할 때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작 우리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실망조차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오전 강의 후에 참가자들은 침묵 속에서 1시간 동안 강의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오후 강의에서 배 신부는 교황님이 경고하신 15가지 영적질병을 소개했다. 이는 1. 스스로를 불멸할 존재로 믿거나 2. 과도한 활동을 하거나 3. 정신과 영이 돌처럼 굳어지거나 4. 지나치게 계획을 세우고 정확을 기하거나 5. 부조화 6. 영적치매 7. 경쟁과 허영 8. 다중인격 9. 뒷말과 수다 10. 지도자의 신격화 11. 무관심 12. 장례식 얼굴 13. 부의 축적 14. 파벌 형성 15. 세속적인 이익 추구와 과시이다.

이어 조별 모임에서 각자가 성찰한 내용을 나누고 7명의 유기서약, 18명의 유기 서약 갱신, 1명의 종신 서약식을 포함한 미사 봉헌으로 피정을 마쳤는데 한 회원은 이번 서약을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피정에서 얻은 기쁨과 설레임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 어린 나이에 예수 잉태에 "예"라고 혁신적인 답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을 가져오신 성모님처럼 우리도 '혁신적인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피정의 열매를 거두자고 다짐했다.

이냐시오 영성 가을 침묵피정은 오는 10월 7일(수)부터 11일(일)까지 뉴저지 모리스타운 소재 Loyola House of Retreats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사진 제공: 정정숙 카타리나
김영숙 카타리나